

마태 21

- 1.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.....1
- 2. 왕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.....2
- 3. 왕께서 무화과나무를 말리심.....4
- 4. 유대인 지도자들이 왕의 권위를 의심함.....5
- 5. 두 아들 비유.....6
- 6.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.....6

1.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

(마 21:1)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에, 올리브 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

(마 21:2) 그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. 그리하면 즉시 너희가 매여 있는 나귀와 그것 결의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.

(마 21:3)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, [주]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, 하라.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, 하시니

(마 21:4)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. 일렀으되,

(마 21:5)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, 보라, 네 [왕]이 네게 임하시느니라.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

(막 11:1)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의 둘을 보내시며

(막 11:2) 그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. 거기서 나귀와 그것 결의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끌고 오라.

(막 11:3)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,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? 하거든 [주]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.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보내리라, 하시매

(막 11:4)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보니 그 나귀 새끼가 두 길이 만나는 곳에서 밖에 문 곁에 매여 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푸니라.

(막 11:5) 거기 서 있던 사 람들 중의 어떤 이들이 그들

(눅 19:28)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.

(눅 19:29) 그분께서 올리브 산이라 하는 산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 중의 둘을 보내시며

(눅 19:30) 이르시되,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. 거기서 나귀와 그것 결의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.

(눅 19:31) 만일 누가 너희에게,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?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, [주]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, 하라, 하시매

(눅 19:32) 보내어진 자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니라.

(눅 19:33) 그들이 나귀 새

(요 12:12) 그 다음 날,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

(요 12:13)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, 호산나, 찬송하리로다. [주]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[왕]이여, 하더라.

(요 12:14)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바,

(요 12:15) 시온의 딸아, 두려워하지 말라. 보라, 네 [왕]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, 함과 같더라.

(요 12:16)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 내니라.

(요 12:17)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

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, 하라, 하였느니라.
 (마 21:6)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
 (마 21:7)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
 (마 21:8)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
 (마 21:9)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,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, 찬송하리로다. [주]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,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, 하더라.
 (마 21:10)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, 이분이 누구시냐? 하거늘
 (마 21:11) 그 무리가 이르되,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, 하니라.

에게 이르되, 너희가 나귀 새끼를 풀며 무슨 일을 하느냐? 하매
 (막 11:6)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게 하니라.
 (막 11:7)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으며 그분께서 그 위에 타시거늘
 (막 11:8)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들을 베어 길에 흩어 깔며
 (막 11:9) 앞에서 가던 자들과 뒤에서 따르던 자들이 외쳐 이르되, 호산나, 찬송하리로다. [주]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,
 (막 11:10) 찬송하리로다. [주]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며,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, 하더라.

끼를 풀 때에 그것의 임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,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? 하매
 (눅 19:34) 그들이 이르되, [주]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, 하고
 (눅 19:35)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벗어 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니
 (눅 19:36) 그분께서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퍼더라.
 (눅 19:37) 이제 그분께서 올리브 산의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소리로 [하나님]을 찬양하기 시작하여
 (눅 19:38) 이르되, 찬송하리로다. [주]의 이름으로 오시는 [왕]이여,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, 하매
 (눅 19:39)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중의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, 선생이여,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, 하거늘
 (눅 19:40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,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, 하시니라.

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.
 (요 12:18)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.
 (요 12:19)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,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? 보라,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, 하니라.

2. 왕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

(마 21:12) 예수님께서 [하나님]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
 (마 21:13) 그들에게 이르시되, 기록된바,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,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, 하시니라.
 (마 21:14)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니
 (마 21:15)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,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,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
 (마 21:16) 그분께 이르되,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네가 듣느냐?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그렇다.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,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? 하시니라.
 (마 21:17) ¶그분께서 그들을 남겨 둔 채 도시 밖으로 나와 베다니에 들어가사 거기서 묵으시니라.

(막 11:15)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.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엎기 시작하시며
 (막 11:16)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
 (막 11:17)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, 기록된바,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, 하지 아니하였느냐?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, 하시매
 (막 11:18)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꾀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.
 (막 11:19)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도시에서 나가시더라.

(눅 19:45)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며
 (눅 19:46) 그들에게 이르시되, 기록된바,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,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, 하시니라.
 (눅 19:47)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거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꾀하되
 (눅 19:48)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므로 자기들이 행할 바를 찾지 못하였더라.

(요 2:13)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
 (요 2:14)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
 (요 2:15)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
 (요 2:16)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,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[아버지]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, 하시니
 (요 2:17)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바,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, 한 것을 기억하더라.
 (요 2:18) ¶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,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? 하매
 (요 2:19)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, 이 성전을 헐라.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, 하시니
 (요 2:20)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,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십육 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? 하더라.
 (요 2:21)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

씀하셨더라.
 (요 2:22)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.

3. 왕께서 무화과나무를 말리심

(마 21:18)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 오실 때에 시장하시더라.

(마 21:19) 그분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,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, 하시매 곧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리니

(마 21:20)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,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 버리는가! 하매

(마 21:21)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,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,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,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,

(마 21:22)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, 하시니라.

(막 11:11)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사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이 되매 열두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.

(막 11:12)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분께서 시장하시므로

(막 11:13)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.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.

(막 11:14)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,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,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.

(막 11:20) ¶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버린 것을 보고

(막 11:21)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, 선생님 이여, 보소서,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나이다, 하니

(막 11:22)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, [하나님]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.

(막 11:23)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,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,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.

(막 11:24)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.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.

4. 유대인 지도자들이 왕의 권위를 의심함

(마 21:23)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,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? 또 누가 이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? 하거늘

(마 21:24)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,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니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 하리라.

(마 21:25)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? 하늘로부터 왔느냐, 사람들에게서 났느냐? 하시매 그들이 서로 따져 보며 이르되, 만일 우리가, 하늘로부터 왔다, 하면 그가 우리에게,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? 할 것이요,

(마 21:26) 만일 우리가, 사람들에게서 났다,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도다, 하고

(마 21:27)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,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,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.

(막 11:27)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라. 그분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나아와

(막 11:28) 그분께 이르되,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? 또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? 하거늘

(막 11:29)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,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하리니 내게 대답하라.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.

(막 11:30)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, 사람들에게서 났느냐? 내게 대답하라, 하시매

(막 11:31) 그들이 서로 따져 보며 이르되, 만일 우리가, 하늘로부터 왔다, 하면 그가,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? 할 것이요,

(막 11:32) 만일 우리가, 사람들에게서 났다, 하면 또 어찌되리요, 하니라.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대언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.

(막 11:33)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,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,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,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, 하시니라.

(눅 20:1) 그 무렵의 어느 날 그분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

(눅 20:2) 그분께 말하여 이르되,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? 혹은 네게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? 우리에게 말하라, 하거늘

(눅 20:3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,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니 내게 대답하라.

(눅 20:4)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, 사람들에게서 났느냐? 하시매

(눅 20:5) 그들이 서로 따져 보며 이르되, 만일 우리가, 하늘로부터 왔다, 하면 그가,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? 할 것이요,

(눅 20:6) 만일 우리가, 사람들에게서 났다,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이 대언자인 줄 확신하므로 우리를 돌로 치리라, 하고

(눅 20:7)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들이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니

(눅 20:8)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, 하시니라.

5. 두 아들 비유

(마 21:28)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?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, 아들이여,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, 하니

(마 21:29)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, 가지 아니하겠나이다,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

(마 21:30)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, 아버지여, 가겠나이다,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.

(마 21:31)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?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, 첫째 아들이라, 하거늘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[하나님]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.

(마 21:32)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.

6.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

(마 21:33) ¶ 다른 비유를 들으라.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우고 먼 나라로 갔다가

(마 21:34)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매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니

(마 21:35)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

(마 21:36)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늘

(마 21:37)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, 그

(막 12:1)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,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우고 먼 나라로 갔다가

(막 12:2) 철이 이르매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

(막 12:3)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.

(막 12:4)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보내었거늘

(막 12:5) 또 다시 그가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밖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

(눅 20:9) 그 뒤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,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우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

(눅 20:10) 철이 이르매 농부들이 포도원의 열매를 자기에게 바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한 종을 보내었으나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.

(눅 20:11)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도 때리고 수치스럽게 대하며 빈손으로 보내매

(눅 20:12) 그가 다시 셋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그를 내쫓으니라.

(눅 20:13) 이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, 어찌할까? 내가 내 사랑하는 아

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, 하였으나
 (마 21:38)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,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,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, 하고
 (마 21:39)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.
 (마 21:40)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? 하시니
 (마 21:41)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,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 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주리라, 하매
 (마 21:42)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,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[주]께서 행하신 것이요, 우리 눈에 놀랍도다, 한 말씀을 결코 읽어 본 적이 없느냐?
 (마 21:43)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[하나님]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.
 (마 21:44)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, 하시니라.
 (마 21:45)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달았으나
 (마 21:46) 그분께 손을 대려 할 때에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더라.

이니라.
 (막 12:6) 그에게 아직 한 아들 곧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,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, 하였으나
 (막 12:7)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,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, 우리가 그를 죽이자. 그러면 그 상속 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, 하고
 (막 12:8)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.
 (막 12:9)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?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.
 (막 12:10) 너희가,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
 (막 12:11) 이것은 [주]께서 행하신 것이요, 우리 눈에 놀랍도다,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? 하시니라.
 (막 12:12)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붙잡으려 하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.

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하리라, 하였으나
 (눅 20:14) 농부들이 그를 보고는 자기들끼리 따져 보며 이르되,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,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 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, 하고
 (눅 20:15) 이에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.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?
 (눅 20:16)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,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, 결코 그리될 수 없나이다, 하거늘
 (눅 20:17)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, 그러면 기록된바,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, 한 이 말씀은 무엇이나?
 (눅 20:18)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, 하시니라.
 (눅 20:19)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깨닫고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 손을 대려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.